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1**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더 · 욕기 · 요한복음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세발예수교
창조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님과 시작하는 믿음의 삶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에스더 1장 ~ 에스더 5장
- 16 1과 하나님은 선하시다
- 24 매일성경묵상 에스더 6장 ~ 에스더 10장
옴기 1장
- 32 2과 아침 기도
- 40 매일성경묵상 옴기 2장 ~ 옴기 7장
- 48 3과 골로새에 있는 교회
- 56 매일성경묵상 요한복음 12장 ~ 요한복음 17장
- 64 4과 우리 아버지여
- 72 매일성경묵상 요한복음 18장 ~ 요한복음 21장

1 January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에스더 1장 신년감사예배	2 에스더 2장
6 제1차 성찬식	7 에스더 6장	8 에스더 7장	9 에스더 8장
13	14 욥기 2장	15 욥기 3장	16 욥기 4장
20	21 요한복음 12장	22 요한복음 13장	23 요한복음 14장
27 선교주일	28 요한복음 18장	29 요한복음 19장	30 요한복음 20장

February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에스더 3장

4 에스더 4장

5 에스더 5장

10 에스더 9장

11 에스더 10장

12 욥기 1장

17 욥기 5장

18 욥기 6장

19 욥기 7장

24 요한복음 15장

25 요한복음 16장

26 요한복음 17장

31 요한복음 21장

교회 주요 일정

1월 1일

신년감사예배

1월 6일

제1차 성찬식

1월 27일

선교주일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시작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아침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군센 믿음과 신실한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13년 1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에배 · 구역에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왕후 와스디

1

화요일

에스더 1장

찬송가 216장

묵상노트

아하수에로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 부임한 지 제3년에 바사와 메대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180일 동안 수산 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1~4절). 이 날이 지나자 왕은 또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5~8절). 7일째 되던 날 왕이 취하여 왕후의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시를 시켜 왕후를 데려올 것을 명하였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거절합니다(9~12절). 이에 왕이 화가 나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왕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자 무무간이 왕후를 폐위시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해야 한다고 간청합니다(13~20절). 왕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21~22절).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은 그다지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세상이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모르드개의 조카인 에스더가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인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웅장한 사건들과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관심 또한 늘 예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에 1:15)

"According to law, what must be done to Queen Vashti?" he asked. "She has not obeyed the command of King Xerxes that the eunuchs have taken to her." (Esth. 1:15)

•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2절): 바사 제국의 왕실은 '엑바타나'와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수산' 등 여러 도시에 궁전을 갖고 있던 바, 수산 궁은 겨울에 머무르는 피한지였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왕후로 삼으소서

에스더 2장
찬송가 388장

묵상노트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 신하들은 왕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녀들을 후궁으로 들여 그중에서 다시 왕후를 뽑을 것을 아히수어로 왕에게 간청합니다(1~4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그의 조카 에스더와 함께 수산 도성에 살고 있었습니다(5~7절).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수산의 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녀를 후궁의 처소로 인도했습니다(8~11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자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녀를 사랑하므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습니다(12~18절). 모르드개가 대궐 문지기로 있을 때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자 모르드개는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려 왕에게 전하였고, 왕은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아 이 사건을 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19~23절).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마치 아히수어로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왕의 결정에 의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등장은 심상치 않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그녀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 온 유다인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미 멸망당하여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유다에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소망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 대궐 문에 앉았더라(19절) : 모르드개가 중요한 곳인 대궐 문을 지키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에 2:4)

“Then let the girl who pleases the king be queen instead of Vashti.” This advice appealed to the king, and he followed it. (Esth. 2:4)

기도제목

- 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하소서.
-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어찌하여 거역하였느냐

3

목요일

에스더 3장

찬송가 412장

묵상노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리자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 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며 하만에게 꿇어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1~4절).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하만은 모르드개에게 심히 노하여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왕에게 나아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민족이 있음을 고발합니다(5~8절). 왕은 하만에게 왕의 반지와 일만 달란트를 주어 그들을 진멸하고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9~11절). 하만은 열두째 달 십삼 일 하루 동안에 어린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탈취할 것을 조서에 기록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 역졸들에게 전달하여 각 지방으로 보내었습니다(12~15절).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다를 폐위하고 새롭게 에스더를 왕후로 세움으로 에스더와 연결됩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계획한 내시들의 모반 사건을 통해 모르드개와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들 중간에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된 아각 사람 하만이 있습니다. 그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라면 누구나 그에게 절을 해야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오직 모르드개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향해서 절할 것을 권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절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르드개가 다른 관료들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에 3:3)

Then the royal officials at the king's gate asked Mordecai, "Why do you disobey the king's command?" (Esth. 3:3)

• 아각 사람 하만(1절) : '아각'을 하만의 고향으로 보기도 하나, 오히려 '아각 사람'은 옛날 사울에게 사로잡혔던 아말렉의 왕 아각(삼상 15:8)의 자손을 일컫는 말로 보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하만과 모르드개의 대립은 그 옛날 아각과 사울의 대결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속하심을 보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4

금요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4장
찬송가 459장

묵상노트

모르드개는 하만의 모든 계락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 통곡하였으며 많은 유대인들도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1~3절).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시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4~5절). 모르드개는 내시 하닥에게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일과 왕의 조서 초본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게 했습니다(6~9절). 이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삼 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금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10~17절).

모르드개가 통곡한 것은 단순히 하만의 비열함과 또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원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개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언약의 민족의 유대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관계된 민족과 나라는 다릅니다. 그들은 약속의 도구이기에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한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흐릅니다. 때문에 모르드개는 단순히 애국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보내시기로 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유대 민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세상과 신자의 다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 4:14)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Esth. 4:14)

• 금 규(11절) : 왕의 금지 평이를 가리킨다. 왕은 이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기도제목

① 내 민족, 내 나라, 내 교회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줄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쓰임 받는 자

5

토요일

에스더 5장
찬송가 93장

묵상노트

금식한 지 삼 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그녀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합니다(1~3절).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자 왕은 급히 하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에스더의 소원을 다시 묻습니다(4~6절). 하지만 에스더는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해 또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때 왕의 말씀대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7~8절). 그 날 하만의 친지들은 하만에게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높이 오십 규빗 되는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9~14절).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국법이 있음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발걸음은 이미 자기를 포기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위해 드러진 발걸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더의 생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오히려 에스더에게 그녀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인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주님의 행하심을 알고 믿으며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에 5:6)

As they were drinking wine, the king again asked Esther, "Now what is your petition? It will be given you. And what is your request? Even up to half the kingdom, it will be granted." (Esth. 5:6)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14절) : 바사인들이 치형수를 치형하는 데 사용한 나무로 말뚝이나 십자가로 이해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주님의 행하심을 알고 믿으며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첫 번째 성찬식

몇 년 전만 해도 '성찬식'이라는 단어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라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에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졌고, 다들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실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서 그냥 쟁반을 전달하며 막연하게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성찬식이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막연한 '소외감'에 이번 성찬식이 너무도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것들에 치중하여 기다려왔던 나의 첫 번째 성찬식은 그냥 형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내게 첫 번째 성찬을 축하해 주며, 어땠냐고 물어 오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냥 떡과 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첫 성찬의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나는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해져 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었을 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죄인 된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으며,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늘 내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값없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2012년 1월 1일은 내가 손을 내밀어 떡과 잔을 마신 첫 번째 성찬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떡과 잔을 내어 주셨음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매일같이 기념하고 감사하며, 매일이 나의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6 주일

7 월요일

☐ 에스더 6장

8 화요일

☐ 에스더 7장

9 수요일

☐ 에스더 8장

10 목요일

☐ 에스더 9장

11 금요일

☐ 에스더 10장

12 토요일

☐ 출기 1장

1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 초점 |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 찬송 |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번서

| 본문 | 시편 72:18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솔로몬이 기록한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주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대상 29:10).

※ 주님을 향한 나의 찬송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알기에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의 모든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 55:8~9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놀랍도록 선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사 6:3

이사야는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왕좌에 앉아 계신 높고 고귀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비슷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 5:13~14 /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_____ 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 100:5

나 1:7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창세기 1:10,12,16~18,25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 19:1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선하심을 확증하셨고, 그 결과 하늘조차도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속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롬 5:8~9 / 우리가 _____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_____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롬 5:1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인류를 대속하사 속량하셨고, 이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역입니다.

갈 1:4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우리는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롬 5:1 _____

요 6:37 _____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롬 8:28~29 _____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은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역으로 민족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마 24:7~8,14). 바로 지금, 우리 주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완성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선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놀랍도록 선한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것입니까? 매우 기대되는 2013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며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애 3:25 _____

롬 12: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②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선한 일을 감사하게 하소서.
- ③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천>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우연히 그 날 밤에

에스더 6장
찬송가 325장

묵상노트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데 그 속에서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는 내용을 듣고 신하들에게 모르드개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1~3절). 왕은 모르드개에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 신하를 찾다가 마침 뜰에 있던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4~6절). 왕은 모르드개를 하만이 말한 대로 존귀하게 하라고 명하고 하만은 모르드개를 말에 태워서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만이 자신이 당한 일을 친구들과 아내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만이 결국 모르드개에게 지고 말 것이라고 조언합니다(7~14절).

모르드개를 죽일 음모를 가지고 왕 앞에 아침 일찍이 찾아 들어간 하만이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개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선전해야 했던 일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일 모르드개가 내시들의 모살 음모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거나, 이 일을 밝힘으로써 어떤 종류의 상급을 미리 받았다거나, 에스더의 연회에서 돌아온 왕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거나, 역대 일기를 낭독한 시종이 모르드개와 상관없는 부분을 읽었다면 왕은 모르드개의 공적을 기억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특히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 말을 태워서(9절) : 애굽이 요셉에게 베푼 존귀함과 비슷하다(창 41:3)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니라(에 6:1)

That night, the king could not sleep; so he ordered the book of the chronicles, the record of his reign, to be brought in and read to him. (Esth. 6:1)

기도제목

① 지금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생명을 구하니

8

화요일

왕이 하만과 함께 둘째 날 잔치에 나가 술을 마시며 왕후에게 소원을 물으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으니 만일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건져달라 고 간청합니다(1~4절). 아하수어로 왕이 그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고 묻자 에스더는 그 악한 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합니다(5~6절). 왕이 노하여 자리를 떠나 후원으로 들어가자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다가가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왕이 돌아오면서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결상 위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저가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려 한다고 소리칩니다(7~8절).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가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만의 집 마당에 높이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고 고하자 왕은 오히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 버렸습니다(9~10절).

뇌물로 왕의 환심을 사서 한 민족을, 그것도 왕후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책동한 것은 극악무도한 반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손쓸 사이도 없이 사태가 급진전되자 하만은 급기야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개나 에스더에게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만은 생존을 위해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 반면,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생명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영생)을 위해 산다면 늘 예수님과 교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7장
찬송가 213장

묵상노트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에 7:7)

The king got up in a rage, left his wine and went out into the palace garden. But Haman, realizing that the king had already decided his fate, stayed behind to beg Queen Esther for his life. (Esth. 7:7)

• 열굴을 찢더라(8절) :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즉 '죽는다'는 상징성을 띠는 행동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이 땅의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에스더 8장
찬송가 458장

묵상노트

에스더가 다시 왕께 나아가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간청하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뜻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를 찍도록 했습니다(1~8절). 모르드개는 서기관에게 유다인들은 각 지방에서 세력을 모아 유다인을 치려는 자들을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오히려 죽이고 도륙하여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조서를 쓰게 하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백이십칠 지방으로 보냈으며 도산 수성에도 그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9~14절). 왕의 어명이 이른 각 지방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15~17절).

아하수에로 왕은 처형당한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개에게 왕의 반지를 주고 하만의 집과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 것으로 그동안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당한 심적 고통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처음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 4:14)라고 말한 모르드개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에스더는 돈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만과 같이 악한 꾀를 부리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자신들의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마다 유일한 뜻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에 8:3)

Esther again pleaded with the king, falling at his feet and weeping. She begged him to put an end to the evil plan of Haman the Agagite, which he had devised against the Jews. (Esth. 8:3)

• 조복(15절) : 관원들이 궁정에 나아갈 때 입은 예복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묵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10

목요일

열두째 달 십삼일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였습니다(1~10절).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 주었으며 수산 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십오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고,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십사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11~19절).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한 규례를 세워 매년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부림절로 정해 잔치를 하게 하였고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도 동일하게 행하게 했습니다(20~32절).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날로 영원히 기념되었습니다. 그 날에 도산 수성에서만 유대인들의 대적자 5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음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멸망해버렸음에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며,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약속이 흘러가는 언약 백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9:31)

To establish these days of Purim at their designated times, as Mordecai the Jew and Queen Esther had decreed for them, and as they had established for themselves and their descendants in regard to their times of fasting and lamentation. (Esth. 9:31)

에스더 9장
찬송가 452장

묵상노트

• 서로 예물을 주더라(19절): 부림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선물은 주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다(22절).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늘 바라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에스더 10장
찬송가 451장

묵상노트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고, 유대인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위해 일했습니다(1~3절).

이스라엘은 그 존재가 처음부터 세속 국가와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이것은 출애굽을 한 후에 더 구체화되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6)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나라도,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가 존재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지상의 나라들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때문에 에스더서는 이미 멸망 당해버린 나라를 통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눅 17:2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 (2절) : 왕이 모르드개를 높인 사적이 세속사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에 10:2)

And all his acts of power and might, together with a full account of the greatness of Mordecai to which the king had raised him,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Esth. 10:2)

기도제목

① 내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② 총현 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안료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탄이 여호와께

12

토요일

욥기 1장

찬송가 214장

묵상노트

우스 땅에 아들 일곱에 딸을 셋 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이며 자녀들과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죄를 멀리하는 자였습니다(1~5절).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살펴보았는지 사탄에게 묻습니다(6~8절).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많은 소유물 때문이니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몸만 제외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겨주셨습니다(9~12절). 사탄은 순식간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의 불과 큰 바람을 이용하여 하루만에 욥의 모든 재산을 잃게 하고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13~19절).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20~22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열 남매를 거느린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왜 경건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냐' 욥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올까?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로 욥의 고난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누가 더 옳은가를 논하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욥 1:9)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Satan replied.(Job. 1:9)

•우스 땅(1절) : 갈대아와 아라비아의 접경 지대인 유브라데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애돔과 가까웠던 것 같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자신에게 물어 보자

(시편 42:5~11)

”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시 42:1~2). 그러나 사람들은 비판한다(시 42:3).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자.

용기를 잃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시 42:5).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 악한 무리들의 공격은 계속된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를 잃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롬 8:28 ; 빌 4:4~7).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롬 8:38~39). 용기를 잃을 때 주님께로 가면 찬송할 수 있다.



불안할 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시 42:11).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 속에서 불안해 하였다(창 42:36 ; 왕상 19:4).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후 12:9).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둘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시 43:5). 삶의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로 5:1~2,5). 예레미야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했다(애 3:19~23). 무엇이 두렵고 불안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요 19:30).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아멘.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3 주일

14 월요일

☐ 읽기 2장

15 화요일

☐ 읽기 3장

16 수요일

☐ 읽기 4장

17 목요일

☐ 읽기 5장

18 금요일

☐ 읽기 6장

19 토요일

☐ 읽기 7장

2

아침 기도

Morning Prayer

| 초점 |

아침마다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 찬송 |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본문 | 시편 5:1~3

¹⁾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²⁾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³⁾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아침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의 무덤에 간 것에 관하여 오스틴 마일스는 “나 홀로 그 동산에 이르렀다네”를 작시했습니다.

※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절 가사를 쓴 뒤,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풀에 맺힌 이슬처럼 오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합니다. 아침에 드린 한 시간은 저녁에 드린 두 시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도는 준비해야 한다

기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 5:1 _____

기도는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길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것입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 여러분은 아침에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참된 기도는 우리의 말보다 더 깊습니다. 기도는 사려 깊고, 우리 마음의 깊은 데에서 흐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미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이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외식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시 4:1 _____

마 6:6~8 _____

기도는 개인적이다

기도는 개인적입니다.

시 5:2 _____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드리는, 들리지도 않는 대화가 아닙니다.

시 23:1 _____

마 26:39 _____

종종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초점을 두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가장 중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모님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 1:12 _____

※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는 긍정적인 안목을 갖게 한다

기도는 긍정적인 안목을 갖게 합니다.

시 5:3

여러분이 주님께 직접 기도할 때 모든 한계는 제거되며, 모든 문제들은 풀립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아침이 우울하고 힘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마다 가장 먼저 “오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왕”이라고 울부짖으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 기도는 구름을 걷어버리고 햇살을 불러옵니다.

약 1:5~8

내일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전능하신 주님을 향해 고백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은 하루를 어떤 우울함이나 두려움도 없이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서 첫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준비와 더불어 끈기 있게 인내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주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눅 22:32 _____

유 1:20~2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아침마다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좁고 험한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읍기 2장

찬가 368장

묵상노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읍을 칭찬하며 그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그러자 사탄은 읍의 삶과 뼈를 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읍의 생명만 제외하고 그를 사탄에게 맡겨주셨습니다(4~6절). 사탄은 곧 읍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고 읍은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굽기에 이르렀습니다(7~8절). 그의 아내가 읍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으라고 저주하자 읍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범죄하지 않습니다(9~10절).

읍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은 사탄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읍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또 내기를 신청합니다. 읍의 온 몸에 종기가 나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으라고 저주하지만, 읍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10절)라고 말합니다. 읍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읍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면서 출발한 믿음은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신은 더 이상 믿을 가치조차 없는 신이 되고 맙니다. 읍의 아내의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전형적인 나에게서 출발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읍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읍 2:10)

He replied, “You are talking like a foolish woman. Shall we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trouble?” In all this, Job did not sin in what he said. (Job. 2:10)

• 겹옷을 찢고(12절) : 고대 근동에서 큰 슬픔을 묘사하는 방법이었다.

기도제목

① 믿음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감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웁이 입을 열어 저주하니라

15

화요일

욥기 3장

찬송가 337장

묵상노트

그 후 웁은 입을 열어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1~12절). 최소한 태어나 젖만 빨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세상의 임금들과 고관들이 잠든 곳에서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빛도 못 볼 것이기에 거기서 심을 얻었을 것인데 자신이 왜 태어나 살아 있는지를 한탄합니다(13~19절). 또한 죽기를 바라니 죽음이 오지 않음과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이 다만 불안만 있는 삶을 저주합니다(20~26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잘 참고 믿음을 지켰던 웁이 더 이상은 삼고 견딜 수 없었던지 그의 입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웁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웁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에 100% 만족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잃게 된다면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하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경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 후에 웁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욥 3:1)

After this, Job opened his mouth and cursed the day of his birth. (Job. 3:1)

• 태에서(11절) : '태로부터', '내가 태에서 나오자마자 곧'을 뜻한다. 하지만 내가 아직 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기 4장

찬송가 492장

묵상노트

엘리바스는 욥에게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실증을 내겠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는데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더니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는구나”라고 하며 따져 묻습니다(1~5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자랑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네 소망일 진데 잘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으니 분명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6~11절).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세미하게 들은 음성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12~21절).

엘리바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네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아 이렇게 된 것이니,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면 다시 예전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평범한 생각일 뿐입니다. 욥 역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우 ‘나는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의문은 금새 의심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몸이 그렇지 못한 것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든 몸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꼭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자기 죄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 장막 줄(21절) : 인간의 육체, 인간의 생명을 뜻한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욥 4:7)
Consider now: Who, being innocent, has ever perished? Where were the upright ever destroyed?(Job. 4:7)

기도제목

- ①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 ② 심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읍기 5장
찬송가 91장

묵상노트

엘리바스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인데 내가 미련한 사람의 뿌리 내리는 것을 보니 그 집이 저주를 받고 그의 자식들도 그러했노라(1~7절). 그러니 만약 나 같으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그분께 위탁할 것”이라고 욥에게 충고합니다(8~16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라(17~18절).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서 너를 구원하시어 평안케 하실 것이라”(19~27절)며 충고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1~16절)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다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17~27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전혀 복음이 아니며 진리도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런 내용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능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방신을 경배하는 자도 얼마든지 사고할 수 있는 평범한 인간 이성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복음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외칠 이유도 사라져 버립니다. 듣기 좋은 말은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 복음이며, 헛된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희망도 잃은 욥에게 다시 재산을 모을 것이고, 건강도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복음에 끊임없이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욥 5:24)

You will know that your tent is secure; you will take stock of your property and find nothing missing. (Job. 5:24)

• 연구한 바(27절) : 엘리바스는 신앙의 입장이 아닌 인간적인 관찰과 경험을 참된 결론인 양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하는 위로의 말을 접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욥기 6장

찬송가 329장

묵상노트

욥은 “나의 고통을 저울에 달아 볼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니 두려움이 엄습하는구나(1~7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 내 생명을 끊고 나를 죽여주시면 그것이 차라리 내게 위로가 되고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내게 기쁨이 될 터인데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기력이 없구나(8~13절). 낙심한 자에게는 친구가 필요한데 내 친구들은 번덕스러워서 마치 물을 찾는 자들이 개울에 희망을 걸다가 가까이 와서는 낙심하듯이 내 목골을 보고 겁을 내는구나(14~21절). 너희는 나의 허물을 말해보라 너희는 내게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내게 불의가 있는가 보라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거짓으로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22~30절)라고 대답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 욥은 자신을 이렇게 변론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을 갈구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셋째는 신실치 못한 친구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해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 또한 자기 고통 해소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필요와 자기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욥 역시 위대한 신앙인인 것 같으나 그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친구들에게 화내며 자신을 변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이상 고통이 지속되지 않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이 실족하여 넘어짐에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욥 6:24)

Teach me, and I will be quiet; show me where I have been wrong. (Job. 6:24)

• 고아를 제비 뽑으며(27절) : 지물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자녀들을 놓고 노예 삼기 위하여 제비 뽑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9

토요일

요은 “품꾼들이 힘들게 일하고 그 삯을 기다리듯이 내가 사는 것이 그와 같아서 밤마다 새벽을 기다리며 언제 일어날까 뒤척이는구나(1~4절).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을까, 침상에 누워 내 수심을 풀고 고통을 잊을까 하지만 주님은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시므로 내 마음이 뼈를 짚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5~15절).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눈을 떴지 못하십니까. 이제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16~21절)라고 말합니다.

요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11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역울함과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연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인간의 태도가 합당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고통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을 가진 인간이기에 아픔이 올 때는 온 몸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닥쳐올 때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염려들이 우리가 얻은 영생을 가로막을 수는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이 사망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우리 몸에 닥쳐오는 작은 환난들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불평이 아닌 진실된 감사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요 7:11)

Therefore I will not keep silent; I will speak out in the anguish of my spirit, I will complain in the bitterness of my soul. (Job. 7:11)

요기 7장

찬송가 264장

묵상노트

• 품꾼의 날(1절) :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인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정한 기간을 가짐을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우리 몸에 닥쳐오는 작은 환난들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파노라마

성경의 절기①

구원 사건 기념 절기

명 칭	시 기	목 적
유월절	니산월 14일 저녁 (출 12:6 ; 레 23:5 ; 민 28:16)	•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신 16:1) •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심을 상기시키기 위함(출 12:16~20)
무교절	니산월 14일에 시작 하여 1주일간 계속됨 (레 23:5~6)	•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함. 무교병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희생과 봉사란 의미(출 12:16~20)
수전절	아홉 번째 달 25일부터 8일간	• 유다 마카베오의 승리와 그의 지도력 아래 성전이 정화되고 재 봉헌된 것을 기념
부림절	아달월(태양력 2,3월) 14,15일(예 9:17)	• 유대인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에 의해 하만으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에 9:31)

절기는 정기적으로 과거의 특정 사건을 기념하여 그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한 제도이다.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원리에 근거한 일자 구분 및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구원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의무 조항의 하나로 규정하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신약의 성도가 히브리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아니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구약의 구속사적 의미가 깊은 것이므로 그 절기가 갖는 영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용	의 미
• 1월 10일에 준비한 흠 없고 1년 된 어린 수양을 14일에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음(출 12:8) •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출 12:7)	• 유월절 희생양은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요 1:29) • 성도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음을 예시(요 3:16) • 성만찬을 암시(마 26:17~29)
•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 (민 28:19~24) •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함(출 12:15~20)	• 무교병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전적인 희생과 봉사를 암시(고후 5:8) •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을 위해 찢기심을 암시(히 9:12~14)
•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이 각 집에서 지켰으며 첫날부터 매일 한 개의 촛불을 더해 8일째에는 8개의 촛불을 켜	•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각자가 몸의 성결을 힘써야 함을 예시 (엡 1:21~22)
• 유대인이 구원된 13일에는 축제 준비로 금식을 하고 14일 저녁부터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낭독함 •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회중은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 될지어다'를 외침. 이튿날에도 낭독은 계속 되며 오락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함 (에 9:19,22)	•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구원됨을 암시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늘 사탄의 꾀계로부터 지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구원과 상급을 내려 주심을 예시(시 19:1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0 주일

21 월요일

☐ 요한복음 12장

22 화요일

☐ 요한복음 13장

23 수요일

☐ 요한복음 14장

24 목요일

☐ 요한복음 15장

25 금요일

☐ 요한복음 16장

26 토요일

☐ 요한복음 17장

3

골로새에 있는 교회

The Church At Colosse

| 초점 |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자

| 찬송 |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본문 | 골로새서 1:1~8

¹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²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³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었 ⁵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⁶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⁷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 ⁸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진리의 원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 전파와 골로새 성도들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인해 중요한 진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엡 1:7). 에바브라는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골 1:8

※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바울의 심령은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의 좋은 소식들로 인해 심신이 상쾌해졌고 회복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무엇이 그렇게 놀라웠기에 바울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는지 알기 원하십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굳센 믿음

골로새 교회는 구주를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 1:1~3 _____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유명하거나 부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강한 믿음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까?

작은 믿음이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눅 17:6 _____

막 9:23 _____

신실한 사랑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골 1:4 _____

사랑은 제자도의 증표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13:35 _____

요일 3:14 _____

고전 13:2~3 _____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의 실제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싸움을 끝내고 우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랑하는 교회로 인해서 심신이 상쾌해진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

골로새 교회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골 1:5~6 _____

천국은 이 신실한 신자들에게 실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믿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실제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세상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참으로 천국을 위해 살았습니다.

벧전 1:3~4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_____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_____이라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자신들의 보화를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보화를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투자, 보석류, 금 또는 은행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천국에 자신들의 보화를 쌓아둘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마 6:20~21 _____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기독교 사역을 향한 놀라운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자들을 상쾌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낙담시키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소망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굳센 믿음, 신실한 사랑, 확실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전 13:13 _____

살전 5: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찬송가 94장

묵상노트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1~12절). 이것은 일종의 '표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쉽게 오해합니다. 본문에서는 가롯 유다가 믿지 않는 자로서 오해하여 비판을 받습니다(4~5절).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극적으로 설명하여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 향유를 부음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듯이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실제로 정치적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부요, 그리고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를 씻는 속죄 제사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의 제사로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여 그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왕 되심의 의미입니다. 이 뜻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새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새 언약의 속죄 제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자기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 주시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입니다.

• 나드(3절) : 인도산의 귀한 향유로서 값도 매우 비싸고, 게다가 상용 자체가 취급이 용이하여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여 경매 시장 등에서 통용되기도 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Jn. 12:3)

기도제목

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22

화요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을 주제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2장까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표적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에 대하여 상반된 반응이 드러났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경우도 있었으나 반대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12장 결말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요 12:37). 그러나 13장은 다시금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절).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은 전반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임을 일차적으로 그의 영광 받으심으로 지시합니다. 이러한 죽음임과 영광 받으심의 극단적 대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1~11절). 발을 씻어 주시는 자신을 내어 주시는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뜻합니다. ‘죽음을 통한 섬김’. 그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으로 상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종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임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 내는 대속의 제사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임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친히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대요(13:31)

When he was gone,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Jn. 13:31)

요한복음 13장
찬송가 331장

묵상노트

• 그가 사랑하시는 재23
절: 대부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제자는 다른 아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에 분명하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찬송가 321장

묵상노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이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이나 그것은 영광의 시작이요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짐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 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는데(16,26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 돌아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 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돌보십니다(3,18~19절).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와의 신적 연합을 통해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길 됨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동시에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6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여 그 관계를 볼 때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 보혜사(16절) :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Parakletos)이다. '파라' (곁에)와 '클레토스' (부르다)의 합성어로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기도제목

- ①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의 빛을 따라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추구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와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참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24

목요일

요한복음 15장
찬송가 90장

묵상노트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주어진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요 14:23). 이 새 계명은 단순히 율법적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 행위나 종교적 실천에 의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백성)에 내주하신다는 사랑과 인격적 관계의 표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꾸는 포도밭으로 그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1에서 이미 암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인자'로서 자신 안에 새 백성을 묶으시고 연합시키시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공교함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의 백성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참 신자는 이제 그와 연합된 하나의 연합체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맺게 해야 하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고, 동시에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혀 없게 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습니까?

• **포도나무(1절)** :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팔레스틴 지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신앙의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앓춰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 15:1)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Jn. 15:1)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 연합을 더욱 깊이 알고 누리게 하소서.
- ② 참회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찬송가 31장

묵상노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십니다(요 14:16,26). 이 사실을 두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요 15:26, 16:7). 성령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권면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세상에서 압박받는 교회와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힘준다는 함축적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14절). 또 세상에서 근심 중에 있으나 구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23절), 구하면 받을 것이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밝히십니다(24절). 이것은 분명 구원의 완성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속에서 신자가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어 구원의 신비롭고 놀라운 부요함을 만끽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실족하지(1절) : 헬라어 '스칸달리조'로서 '걸리게 하다',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 번역서(NIV)에 의하면 '길을 잃다', '타락하다'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결국 환난과 압박을 당하여 사람들이 길을 잃고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Jn. 16:33)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승리를 경험케 하소서.
-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창립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6

토요일

요한복음 17장
찬송가 314장

묵상노트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올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도 영광 받을 때가 당도했으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1~5절). 둘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을 잘 보전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6~19절). 셋째,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됨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 같이 모두 하나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라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20~26절).

예수님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보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백성의 하나 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격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진 다니엘 7장에서 예언된 '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절한 뜻과 기도의 제물을 아는 참된 신자의 바람과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인생의 성공을 위한 간구로 기도가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무궁한 인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간구와 소원이 참된 신자의 기도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 17:1)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Father, the time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Jn. 17:1)

• 믿었사옵나이다(8절): 헬라어 '에프스투스'라, 이 말은 능동적으로 어떤 인격자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근거로 그를 알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더욱 풍성한 십자가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 ② 출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뻐했습니다!



첫 선교였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맞지 않는 외국의 오지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막상 선교 출발일이 다가오자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선교를 앞둔 마지막 주에 여러 차례 팀모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였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빨리 선교지 영혼들을 만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설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처음 만난 영혼은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 주름은 깊었으나 편안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노인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과 같이 주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까닥거렸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긍정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에 노인이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현지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어떻게 할까,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숙소와 식사를 걱정하며 기도하였던 소소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성령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선교는 너무 짧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선교가 기다려집니다. 아멘.

안성용(집사, 17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7 주일

28 월요일

☐ 요한복음 18장

29 화요일

☐ 요한복음 19장

30 수요일

☐ 요한복음 20장

31 목요일

☐ 요한복음 21장

1 금요일

☐ 욥기 8장

2 토요일

☐ 욥기 9장

4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 초점 |

주기도의 의미를 기억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 찬송 |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본문 | 마태복음 6:9~13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주는 느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출 20:12 _____

엡 6:1~3 _____

하나님은 가족 구조를 계획하셨으며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주기도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는 아버지께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 6:9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_____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 요한복음 3:16, 6:26~27,34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요 1:12).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 6:10 _____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러저
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 11:10 _____

일용할 양식

주기도는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 6:11 _____

사람들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항상 불평합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매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힘과 기술도 주십니다. 주님은 일 자리와 수입을 공급하심으로 부모님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양식에 있어서의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딤후 5:8 _____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 6:12 _____

우리 자신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일 1:9 _____

마 6:14~15 _____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 6:13

시험에 빠지는 것은 굴레가 되지만,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승리할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고전 10:13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는 영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 6:13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_____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이 죽었을 때 갈 곳에 대해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은퇴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항상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엡 2:7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비롯한 매일의 삶에서 '주기도'를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주기도의 의미를 기억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 '주기도'를 암송하여 써 보십시오(* 현재 교회가 예배 시에 고백하는 것으로).

| 믿음의 기도 |

- ① 매 순간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소서.
- ② 매일 주기도의 의미를 기억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주기도' 대로 살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small, dark object that appears to be the tip or eraser of a pencil, possibly resting on the paper. The rest of the page is completely empty and white.

※ <총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체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8장
찬송가 151장

묵상노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가 유다를 앞잡이로 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이 체포 과정을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것으로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리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내가 그니라”라고 답하십니다(5절). 요한은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고, 그 대답에 병졸들이 물러가 엎드려졌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의 이중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 칭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죽는 자가 곧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체포당함은 수동적 차원에서 붙잡히신 것만이 아닌 그의 자발적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능동적 순종인 것입니다.

• **천부장(12절)** : 약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당시 로마의 1개 군단(6,000명)에는 6명의 천부장이 있었다. 따라서 천부장이 동원될 정도로 예수님의 체포는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요 18:6)
When Jesus said, “I am he,”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Jn. 18:6)

기도제목

- 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 풍성히 경험케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29

화요일

요한복음 19장
찬송가 515장

묵상노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정식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며,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14절). 이때 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15절)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역설이며 숙명적인 선언입니다. 시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맺은 시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의 배반과 언약 파기, 그러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려지심으로 새로운 언약 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옛 시내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마침이며 신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수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30절). 이것은 새 언약 백성의 창조와 새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Jn. 19:30)

• 위에서(11절) : 헬라어 '히노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로서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시사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찬송가 505장

묵상노트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11~18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을 '높임 받음' 또는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영광 받으심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영광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타락으로 멸망하는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충만함을 선포하고 선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적 개입입니다. 이 구원의 개입을 통해 인간은 참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은 새로운 왕을 허락 받은 것입니다. 곧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의 영광 받으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완성과 목적은 성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을 죄인인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심의 가장 최고의 계시가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이며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된 은총의 소식을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19~22절).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올려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 **평강(19절)** : 헬리어 '에이레네', 뜻은 '평화'. '화평' 등의 의미로 히브리인들의 평상시 인사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평강을 뜻한다. 히브리어로는 'shalom'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 20:17)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Jn. 20:17)

기도제목

- ① 내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31

목요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고 그 사명을 고취시키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1~14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증언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심이 드러납니다(15~17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복음 증언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복음 증거자의 궁극적인 사명이요 근거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애쓰고 힘쓰며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회복과 당부는 바로 복음의 중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이 곧 복음 증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좌절과 실패 속에 실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어 참된 영적 회복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정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16절).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이 질문은 신자의 신자됨의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분께 전적으로 항복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이를 품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답할 것입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 21:17)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Jn. 21:17)

요한복음 21장
찬송가 44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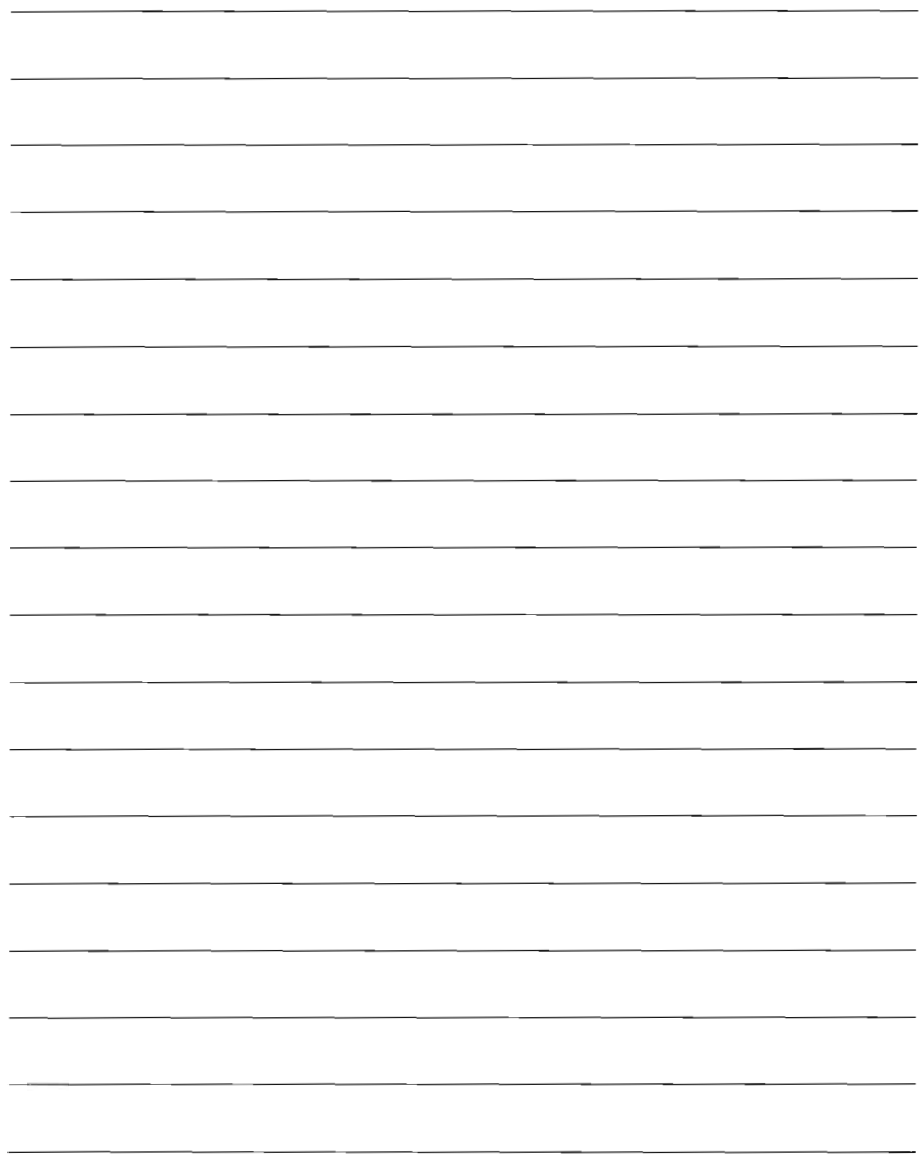
묵상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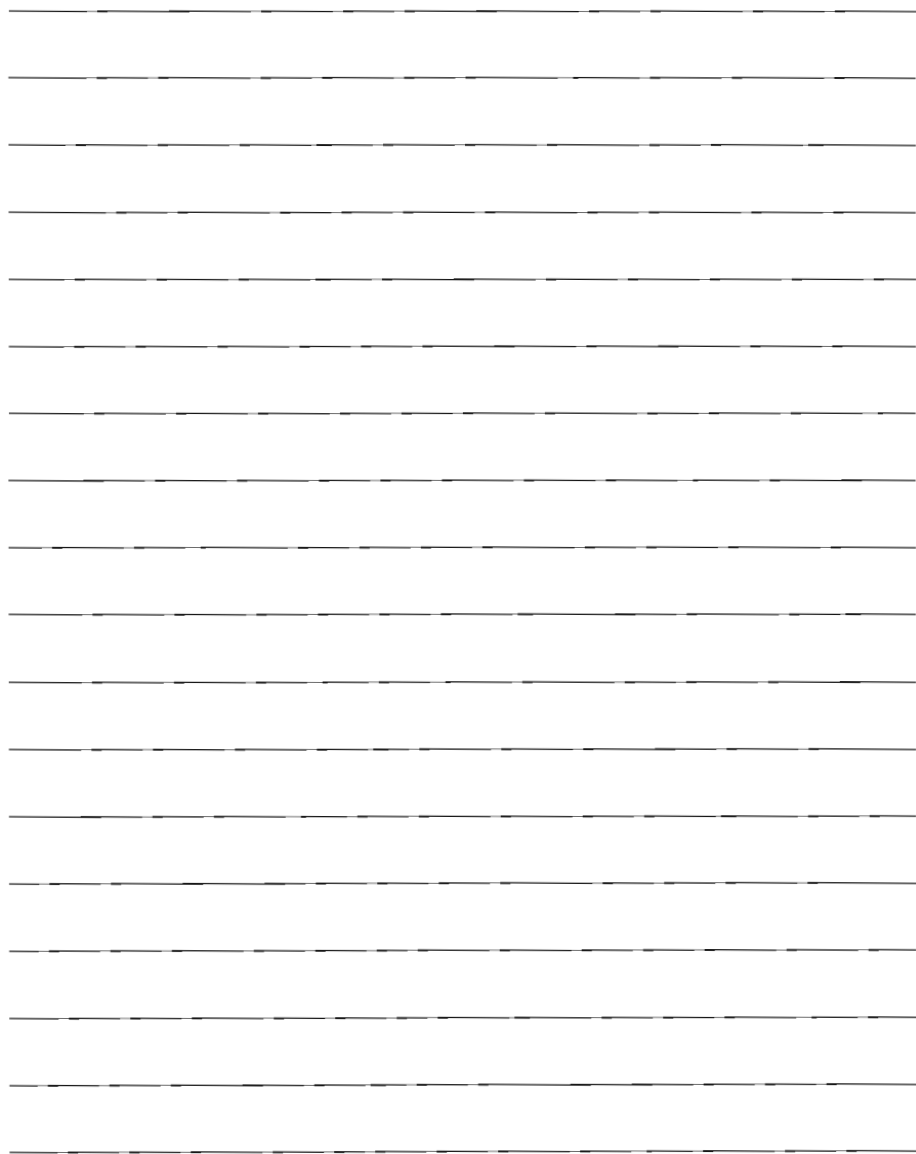
• 사랑하느냐(16절) : 헬라어 '아가파오',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애정과 의지 목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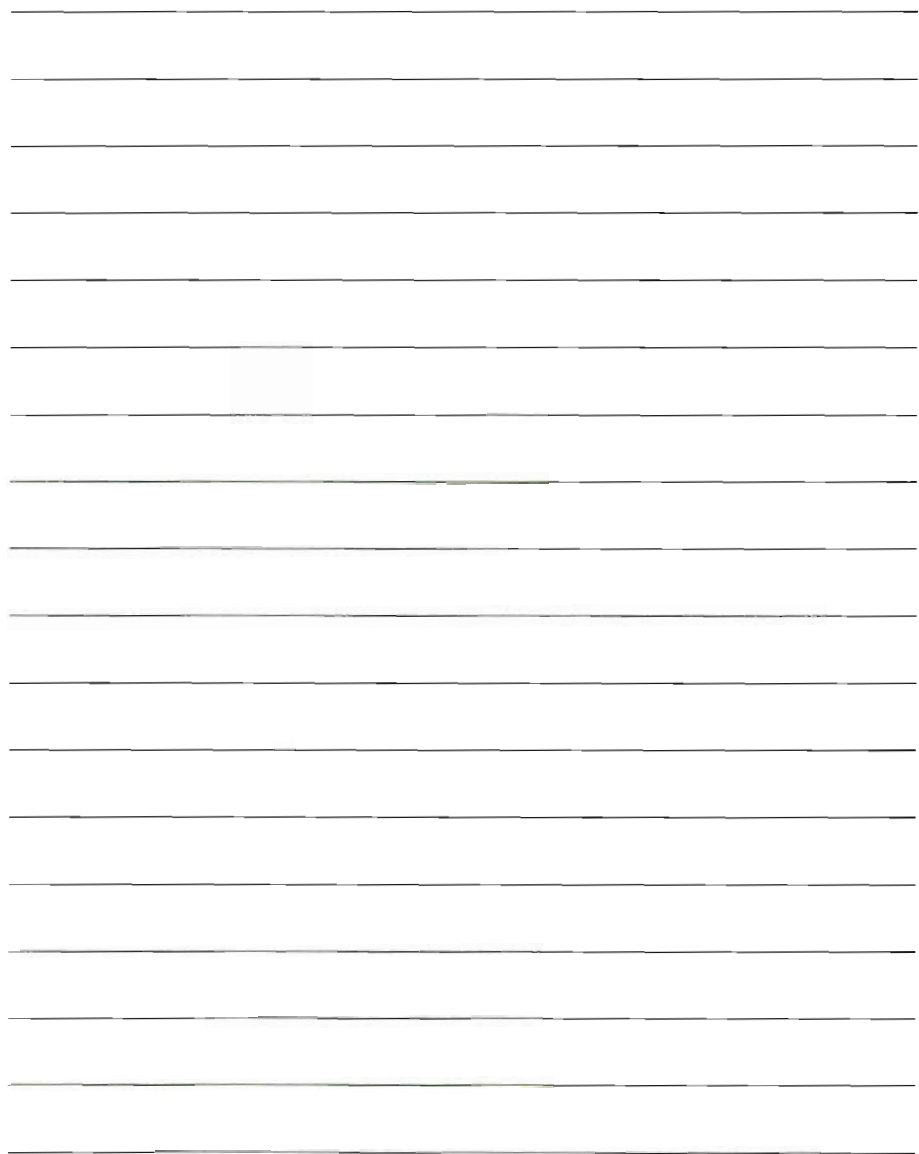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침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1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집필진 | 한정민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